알프스 산악마을 탐방
스위스 8일
2,899,000원부터~
8/22 출발
하얀풍차투어
02-777-6566

비즈프리즘 | 삼성·LG 하반기 스마트폰 대전 시작

아쉬웠던 5G폰 실적…반전 드라마 쓸까?

LG 9월 초 V50 후속 신제품 발표
삼성은 7일 대화면 갤노트10 공개
하반기 글로벌 수요 정체…성과 우려

하반기 삼성과 LG의 전략 스마트폰 대전이 시작된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잇달아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공개할 예정이다. 상반기 첫 5G폰을 내놨음에도 실적이 저조했던 두 회사가 하반기에 새로운 프리미엄 제품으로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LG전자는 6일 글로벌 미디어들에게 스마트폰 공개행사 초청장을 발송했다. LG는 9월 6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박람회장에서 개막하는 가전 전시회 'IFA'에서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을 선보일 예정이다. 하루 전인 9월 5일 베를린 풀만호텔의 베를린 슈바이처호프에서 미디어들에게 먼저 제품을 공개할 계획이다.

LG전자는 9월 6일 베를린 박람회장에서 개막하는 가전 전시회 'IFA'에서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삼성전자는 8월 7일 미국 뉴욕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개최하는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노트10'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은 각 행사 초대장. 사진제공 | 삼성전자·LG전자

LG전자의 신제품은 상반기에 선보인 첫 5G 스마트폰 'V50'을 잇는 'V60'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V50의 핵심인 '듀얼 스크린'을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초청장 영상을 보면 게임 캐릭터가 한 화면에서 같은 크기의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애플리케이션(이하 앱)들을 동시에 구동하는 '동시 사용'과 앱 하나의 사용자환경(UI)을 나눠 실행하는 '분리 사용'이 모두 가능한 점을 표현했다는 것이 LG전자 측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7일 미국 뉴욕 바클레이스센터에서 여는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노트10'을 공개할 예정이다. 갤럭시노트10은 6.3인치 일반 모델과 6.8인치 플러스 모델 두 가지로 알려졌다. 갤럭시노트 시리즈를 두 가지 모델로 내놓는 것은 처음이다. 갤럭시노트10은 중앙 상단에 구멍이 뚫린 '인피니티-O' 디스플레이를 달았다. 또 S펜의 움직임을 인식해 원격으로 스마트폰을 제어할 수 있는 '에어 액션' 기능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를 앞둔 두 기업의 스마트폰 신제품이 업계의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첫 5G폰을 출시한 2분기 사업 실적이 두 회사 모두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IM부문은 2분기 영업이익 1조560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원 가량 줄어든 수치다. LG전자의 MC사업본부는 2분기 영업손실 3130억 원을 기록해 17분기 연속 적자를 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새로운 전략제품과 함께 중저가 라인업을 늘려 돌파구를 찾는다는 전략이다. 다만 하반기에도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 정체는 계속되고, 중저가 라인업의 경쟁도 심화될 전망이어서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일본 여행 안 가"…인기 뚝↓ 지난 1년 하락세서 최근 급락

한 때 한국인의 최고 인기 해외여행지였던 일본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식고 있다.

여행전문리서치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상품과 여행에 대한 불매운동이 시작된 이후 평균 14%p의 소비자가 일본여행에 대해 '긍정 또는 중립'에서 '부정'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일본여행은 한때 전체 아웃바운드(국내서 해외로 여행) 수요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큰 시장이었으나 지난해 2분기 이후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왔다. 업계에서는 일본여행 경험자가 늘면서 여행지로서 '신선함'과 '색다름'이 줄면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감소세에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은 한국인의 여행욕구를 냉각시키는 직격탄이 됐다. 7월4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정책 발표 이후 '일본여행의 관심이 적어졌다'는 응답은 75%로 전 주(36%)에 비해 급등한 반면, '관심이 많아졌다'는 반응은 9%로 전 주에 비해 3분1로 크게 줄었다.

문체부·관광공사 '한국관광의 별' 접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6일부터 9월 8일까지 '2019 한국관광의 별' 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한다. 올해부터 선정방식을 매력도와 기여도를 중심으로 개편해 시상한다. 본상은 본래의 매력이 뛰어난 관광자원, 새로운 매력을 창출한 관광자원, 관광약자 배려 관광자원 중에 4개를 선정한다. 특별상은 잠재력이 높은 신규 관광자원, 한국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프로그램, 한국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각 1개씩, 최대 3개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김재범 기자oldfield@donga.com

"아직 한 여름인데…" 유통업계는 이미 추석 경쟁

이른 추석 연휴…시장 선점 마케팅
대형마트, 가공식품 기획 물량 늘려

숨이 턱턱 막히는 여름 폭염이 극성을 부리는 요즘 대형마트·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추석 선물세트 예약 경쟁에 한창이다. 올해 추석(9월 13일)은 지난해보다 11일 빠르다. 업계는 추석 연휴가 한 달 여 남은 지금, 먼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사전 마케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이번 추석상품에서 가공식품 기획 물량을 늘렸다. 추석이 예년보다 빨리 찾아오면서 신선식품의 시세 예측 및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9월 2일까지 사전 예약판매를 진행하는 롯데마트는 품목에 통조림·식용유 등 가공식품 136종, 샴푸·양말 등 생활용품 67종 등을 포함했다. 9월 1일까지 사전예약 판매를 실시하는 홈플러스는 1,2만 원대 실속형 상품을 강화했다. 30일까지 사전 예약판매를 여는 이마트는 조미료·통조림의 사전 예약 물량을 10~30% 늘렸다.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 담당은 "이른 추석이 추석 선물세트 사전 예약 트렌드를 바꾸고 있다"고 올해 경향을 분석했다.

백화점들은 사전예약 품목이 늘어났다. 18일까지 사전 예약판매를 진행하는 롯데백화점은 신선식품 40여 종, 건강식품 40여 종, 가공식품 60여 종 등 총 150여 종으로 늘렸다. 26일까지 사전 예약판매를 하는 갤러리아백화점도 품목을 250여 개로 늘렸다. 임태춘 롯데백화점 식품리빙부문장은 "사전 예약판매 실적은 전체 추석 선물세트 매출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카스 태극기 패키지 마셔요" 홈플러스가 오비맥주와 협업한 '카스 태극기 이색 패키지'를 선보였다.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국산맥주 장려를 위한 애국 마케팅의 일환이다. 카스 브랜드를 상징하는 파란색 바탕에 태극기의 건곤감리를 프린트한 파우치에 담아 판매한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홈플러스

KT, 금융 전용 클라우드 오픈

KT는 서울 양천구 '목동IDC2센터'에 금융 전용 클라우드를 오픈한다. 이 곳에는 국내 첫 민간 금융 클라우드인 KEB하나은행의 'GLN플랫폼'을 비롯해 '제로페이 포인트 플랫폼' 등 다양한 금융 관련 서비스가 들어온다. KT는 금융 부문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문 컨설팅과 규제기관 수검 지원 등 관련 서비스를 계속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교육·퍼즐

에듀윌 블라인드 채용 확대

하반기 은행권 채용 시작…"금융상식 어필 중요"

주요 은행권의 하반기 채용 일정이 9월부터 시작된다. 대부분 은행의 경우 하반기 채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예년대로라면 다수의 은행이 9월과 10월 초 서류전형을 시작으로 채용에 나설 예정이다.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되면서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졌다. 모 은행의 인사팀 관계자는 "본인만의 경험을 살려 전략적인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라"면서, "업무와 큰 상관이 없는 경험의 단순 나열이 아닌, 금융 전문 상식이 드러나는 포부와 계획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채용 시 필기 전형의 비중도 커졌다. 지원자의 통합적인 사고력과 통찰력,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게 되는 필기시험의 경우, 지원자의 기본적인 '금융 상식'과 더불어 금융업과 은행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력'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요즘과 같이 탈스펙 전형 위주의 채용 상황에서는 지원자가 평소 이해하고 있는 지원 영역의 '일반상식' 분야에 대한 평가가 실질적인 합격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이처럼 금융권 뿐만 아니라 대기업, 공기업, 언론사 등 다수의 채용 분야에서 상식 영역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이에 에듀윌은 기존 기출문제들을 토대로 각 기업체 시험에 나올만한 일반상식 영역만 묶은 '다 통하는 일반상식' 교재를 출간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에듀윌은 적중률 높은 문제만 공략하는 '다 통하는 일반상식'의 강의 학습 과정을 선보이고 있다. 본 강의는 6개년 기출 복원으로 출제 경향을 완벽히 파악했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5			2	9		8	
7						5		9
	4		8		7			
9		7		6		8		
4			9		3			5
		3		4		9		1
			2		6		9	
2		4						8
	3		1	9			5	

	4	2				1	5	
3			7		5			4
5				2				3
	3		8		6		2	
		7				3		
	1		4		9		7	
9				6				5
8			5		1			7
	5	6				8	9	

■ 스도쿠정답

3	5	1	4	2	9	7	8	6
7	2	8	6	3	1	5	4	9
6	4	9	8	5	7	3	1	2
9	1	7	5	6	2	8	3	4
4	8	2	9	1	3	6	7	5
5	6	3	7	4	8	9	2	1
1	7	5	2	8	6	4	9	3
2	9	4	3	7	5	1	6	8
8	3	6	1	9	4	2	5	7

7	4	2	6	8	3	1	5	9
3	6	9	7	1	5	2	8	4
5	8	1	9	2	4	7	6	3
4	3	5	8	7	6	9	2	1
6	9	7	1	5	2	3	4	8
2	1	8	4	3	9	5	7	6
9	7	3	2	6	8	4	1	5
8	2	4	5	9	1	6	3	7
1	5	6	3	4	7	8	9	2